激動하는 大學

鄭 昌 秀
(成均館大 社會學科)

1

4·19가 일어났던 1960년초를 기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을 한국의 대학은 사회의 어느 영역에 있어서보다 더욱 첨예화된 정치적 갈등의 현장으로서 심한 진통을 겪어 왔다. 그리고 지난 한두 해 사이에는 외부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학원 내부를 향해 돌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학원내의 민주화가 학생들의 집단 행동을 유발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解放'을 위한 이념적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의 관점에서 학생 운동의 의의 내지는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존 체제의 고수를 추구하는 세력에서는 '安定과 秩序'의 유지라는 나름대로의 목적 의식에 입각하여 학생 운동이 갖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에서 예로 든 시각들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두 개의 견해를 각기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학을 사회의 다른 제도라든지 활동 영역으로부터 구분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과 관심을 지닌 제도적 영역이라고 보았을 때, 앞에서의 두 견해는 공히 대학의 제도외적 관심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대학 자체의 내재적 관심사로부터 진단하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政治와의 함수 관계의 틀 속에서 규정하려는 의도가 양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학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원인과 징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지식인으로서 대학인들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일종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또한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함께 어느 연령층에 비해서도 가장 활동력이 강한 젊은이들이 대학의 캠퍼스에 지금처럼 대규모로 집결해 있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오늘날에만 목격할 수 있는 특이한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산업화 과정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 세력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들과 상황하에서 대학생들은 역대의 정권에 대해 현실적 역량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리고 아마도 유일한 저항 세력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를 정권을 쥔 세력의 입장에서 뒤집어 본다면, 학원의 통제야말로 곧 '안정과 질서'의 확보를 위한 1차적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역대의 정권이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政府로부터 대학에 가해진 그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二重으로 破行的인 事態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그것은 정치적 의도가 교육적 목적에 선행하여 대학 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파행적 행위였다. 이와 함께 다른 하나의 파행적 사태는 정부의 간섭에 반발하는 학원내의 반작용으로부터 초래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 저항 행위를 학원이 추구해야 할 고유의 임무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치적 저항 운동은 학원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불러오게 되고, 이에 대한 학원 내부로부터의 반발은 곧 정치적 저항과 대학의 자율성의 수호를 상호연관적 목표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인들의 정치적 운동에 대한 자유의 보장이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 그 자체를 파행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 운동이 권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학내의 반작용이 정부 권력과 보다 첨예화된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상승 작용이 계속되는 사이에 학생들의 정치적 조직화와 운동 그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억압적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

대학인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민주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된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 대학의 이념과 기능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에 종속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시각에서 대학의 제도라든지 기능이 지닌 정치적 의의를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해 어떤 특정의 당파성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행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이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억압적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의 확보보다는 이미 특정의 이념과 조직을 갖춘 사회적 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과 환경적 조건을 대학으로부터 확보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대학의 기능을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는 노력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연유하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제가 되었다.

물론 대학이 사회 속에 위치한 제도적 영역으로서 정치 현상이라든지 경제 현상을 비롯한 사회의 기타 현상들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사회의 여러 영역들간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또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념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다른 사회 영역들과는 상이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 대학의 자율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대학이 정치적 이념이나 목적에 종속되는 도구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극히 잘못된 이해로부터 연유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은 정치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여타 영역으로부터 대학의 제도적 독자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이 政治權力에 의해서이든 學生들 자신에 의해서이든 대학의 이념과 기능을 特定의

政治的 目的에 從屬시키려는 행위는 바로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이유에서 大學의 自律性을 威脅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에 대한 제도외적 요소로부터 침해를 방지한다는 소극적인 의미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大學의 自律性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율성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또는 수행해야 할 고유한 기능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제도적 조건의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검토해 보는 일이다. 둘째로는 정치·경제와 같은 사회의 여타 영역과의 상호연관성의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입장에서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진단해 보는 일이라든지, 특히 요즈음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의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일은 위에 지적된 자율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에 도입하여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한다.

3

그럼 먼저 대학의 자율성이 지니는 의의를 대학의 기능과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조건의 맥락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어진 문화권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전수된다는 데 있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또하나의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기능으로서는 그렇게 전수된 전문적 지식의 축적과 창출을 위한 연구의 기능이 지적된다. 교육과 연구가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능의 두 핵심적 축을 이룬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가 자율성을 필요로 하며, 또 대학의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라는 것은 개인들의 생존 내지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는 가치·규범의 체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제도의 자율성이란 곧 그 제도를 이루는 가치·규범 체계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이를 역으로 표현해 본다면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그 제도권 외부로부터의 가치·규범의 체계에 의해 규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학의 운영에 정치권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대학은 교육의 秀越性을 유지하고 교육을 저해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교육적 기준에 의거하여 나름대로의 보상과 형벌의 규범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실제로 교수나 학생들에게 가해진 보상이라든지 형벌들이 과연 교육을 위한 규범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교육을 위한 제도내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보다 크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율성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이 전수되고 축적되고 창출되는 데에는 여타의 사회 영역의 그것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가치관과 행위 규범이 요구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관과 행위 규범이 대학을 특징짓는 제도적 요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흔히 '學問과 思想의 自由'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이 된다. 지식의 전수와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열려진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로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학문 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어떤 기존의 신념 체계나 이해 관심과 충돌하고 지식인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통해 섭렵하면서 우리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대학의 자율성의 측면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통찰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은 지식의 수련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으로서 주어진 문화권에서 가장 고급의 전문 지식이 전수되고 연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독특한 마음의 태세와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대학에 허용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행사되기 이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학문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태세와 자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태세와 지적인 능력은 우선 기존의 지식에 대한 주입적 사회화를 통해서 양성이 된다. 대학이 다른 어떤 사회적 기관에 비해서도 다분히 권위주의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은 학생들을 어떤 미완성의 상태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지적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만들어 내는 사회화의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 역시 다른 어떤 교육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의 권위에 대한 승복과 기존의 지식에 대한 헌신적 학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여받는 교육자의 권위라든지 기존 지식에 대한 헌신은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목격을 하듯이 교육자의 권위는 교육을 위해 정당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지식에 헌신을 시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보다 나은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을 가능성을 항시 내포한다. 그러나 교육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은 곳에 그리고 기존하는 지식에 대한 집중적 헌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교육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교육자의 권위 그리고 기존하는 지식에 대한 헌신이 왕왕 새로운 지식의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기존의 지식에 대한 집중적 헌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뉴튼이나 아인슈타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습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또 그러한 헌신이 교육자의 권위에 의해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교육과 연구 기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대학이 보장받는 권위야말로 대학의 자율성이 갖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자율성의 양 측면으로서 대학이 누리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피교육자들에게 강요되는 대학의 권위는 일견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가치는 상충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둘이 구태여 상충된 것으로 보여야 할 이유는 없다. 즉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허용된 특권이며, 대학에 부여된 권위는 학생들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모순된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침해될 수 없는 자유와 권위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엄연히 사회의 한 하부 영역으로서 사회의 여타 영역들과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연관성의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여기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대학의 제도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듯싶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을 제한된 측면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대학과 여타 사회 영역과의 관계를 특징적으로 조망해 보려고 한다.

4

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역할은 주로 비판적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현실 참여의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는 한다. 지식인의 현실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은 때로는 복잡한 이론이나 논리에 의해 뒷받침이 되기도 하나 그 요지는 사회를 위한 지식의 유용성의 여부에 귀착이 된다. 즉 지식이란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데 그 궁극적인 용도가 있는 것이고, 지식인들은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기는 주체로서 사회에 대하여 책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식인의 공동체로서 대학의 사회적 사명을 흔히 이러한 실천적 차원에서 파악이 된다.

그러나 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요구와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하

더라도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또다른 대학의 사명과 관련하여 유의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실천적 의도에 부합되는 유용한 지식이 실천적 의도 그 자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갖는 유용성이나 타당성이란 그 지식을 산출하는 개인들의 도덕적 품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존하는 지식 체계에 대한 투철한 이해라든지 절제된 통찰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 등과 같은 방법적 타당성에 주로 의존한다. 물론 지식인의 현실 참여는 정의감이라든지 타인들에 대한 사랑과 같은 윤리적 감정이 그 주된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윤리적 동기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의 신장을 위해 현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식인에게만 특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지식인의 현실 참여가 지니는 독특한 의의는 그것이 지식을 소유한 자에 의한 현실의 참여라는 데 있는 것이며,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되었듯이 정의감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같은 윤리적 감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독특한 마음의 태세와 능력을 요하는 일이다. 유용하고 타당성 있는 지식은 기존의 지식에 대한 투철한 이해와 절제된 통찰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체계적 관찰 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의 태세와 능력은 학문의 세계 속에서 철저한 수련을 통해서만 비로소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인의 현실 참여가 타당한 지식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본래의 의도에 부합되는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식인의 집합체로서의 대학이 사회의 한 구성 부분이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 규범의 체계를 유지하는 자율적인 제도로 존속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사회가 행동을 요구할 때 대학에 마침 그러한 부름에 응할 수 있는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해 대학인들에 의한 현실 참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현실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학인의 현실 참여가 책임을 수반한다면 그것은 견실한 학문 활동을 통해 산출된 타당한 지식에 의해 뒷받침이 되는 참여이어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대학인의 현실 참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어느 사회 집단에 의해서도 대치될 수 없는 독특한 기능을 지닌다. 만약 대학인의 현실 참여가 지식인이 갖는 독특한 임무와 기능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다면 잘 조직화되어 있는 젊은이들에 의해 추진되는 군중 운동이라는 정치 역학적 차원 이외의 다른 어떤 의의를 지닐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실 참여가 있기 이전에 학문 활동을 위한 견실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학에서 학문 활동을 위한 조건으로서 부여된 자율성의 특권에 대하여 대학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이 정치적 운동 집단으로서라기보다는 학문 연구의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당위적 근거 또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타당한 지식은 정치적 행위라든지 종교적 행위 등에 적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태세와 행위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얻어질 수 있으며, 학문 세계에 독특한 가치·규범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 있는 현실 참여의 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5

그러면 이상까지 논의된 내용의 맥락에서 현재 대학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學園 民主化運動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학원 민주화라는 구호하에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적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당연히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쟁취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총·학장이나 교수의 선임, 교과과정의 편성, 예산 배정, 등록금의 책정, 기타 학교 운영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학평의회'의 구성에 대한 요구로서 요약될 수 있는 학생들의 모든 주장들은 학원 민주화의 실현에 그 명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이 붙여지는 데 대하여 필자로서는 상당한 개념상의 혼란을 느껴왔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

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느껴왔다.

민주주의란 그 용어 자체가 함축하고 있듯이 主權在民의 사상에 기초한 정치 체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상은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형태로서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하나, 아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도적 장치로는 대의 제도라든지 기본권의 보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자율성의 측면으로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학문 활동의 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특권임과 동시에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학인들이 누리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의 권위에 수반되는 제도적 자율성은 교육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임과 동시에 민주 사회에서 정부 권력을 상대로 하여 여러 사회 집단에게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의 민주화란 그동안 정부 권력에 의해 침해되어 왔던 대학의 권리, 즉 참다운 의미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과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원의 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제기되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학원의 민주화는 국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에 의해 학생들 자신들이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원 내부에서의 교육적 관계에 대해 '민주화'라는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서 필자는 상당한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교육 관계는 그와 같은 정치적 관계에 적용되는 논리에 환원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지닌 행위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대학으로부터 피나는 자기 개선의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개선의 방향은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 본연의 제도적 기능의 충실한 수행에 두어져야 하며 이는 곧 대학이 이제까지 논의된 의미에서의 참다운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의 기본적 기능과 그러한 기능에 따른 가족 관계의 특질에 따라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족 관계는 원초적 관계이며 정의적 관계의 가장 전형적 유형이라는 데 특징이 있고, 가족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추구된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학의 기본적 기능과 그러한 기능에 따른 교육 관계의 본질에 따라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즈음 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활동이라든지 학내 민주화 운동에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에 있어서의 교육과 학문 활동을 저해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내부로부터 전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내에서의,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행위가 곧 대학이 갖는 특권의 표현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행위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취해지든 또 어느 곳에서 취해지든 정치적인 행위로서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모든 행동이 대학의 자율적 기능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으며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대학이 수행하는 본연의 임무를 저해하는 행동 역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大學의 自律性이 갖는 참다운 의의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장 최선의 의미에 있어서 건실한 교육과 학문 활동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라는 책임을 수반함으로써 비로소 참다운 의의를 갖게 되는 대학의 특권인 것이다. ※